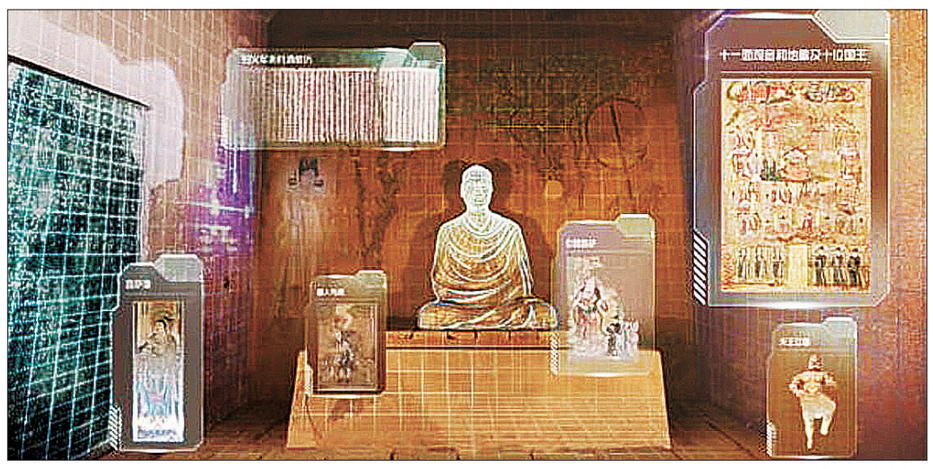
유네스코 둔황석굴 가상현실로 만난다

관람객 출입 인한 훼손 막고자
'장경동' 3D게임 형식으로 재현
공식 캐릭터 제작…볼거리 제공
디지털 문화재 분야 인재육성도

박영빈 객원기자


디지털 트윈 기술로 복원된 막고굴 제17굴 '장경동'. 사진출처=신화통신

세계문화유산으로 불교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둔황 막고굴이 가상현실로 재현됐다. 6월 20일 중국 '신화통신'은 둔황연구원과 인터넷 미디어 기업 텐센트가 공동으로 합작하여 제작한 '디지털 장경동'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중국 간쑤성 둔황시에 소재한 막고굴은 세계 최대규모의 불교 석굴사원 유적으로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1천 년 동안 조영됐다. 735개의 인조 동굴로 만들어 졌으며 이중 492개는 불당, 243개는 스님들의 요사채나 묘굴로 사용됐다. 1961년 중국의 국보에 해당하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됐고, 198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막고굴은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20세기 전반에는 서구열강의 약탈이나 도굴 등으로 많은 훼손을 입었다.

막고굴에서 가장 주목받는 굴은 제 17굴인 장경동(藏經洞)으로 6만여 점의 불경과 고문서들이 발견됐다.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이르는 이 문헌들은 근현대의 '둔황학'의 시초가 된 문헌들로 한문을 비롯해 티베트어나 소그드어 등 당시 실크로드에서 사용된 모든 언어들로 작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신라의 혜초 스님이 쓴 〈왕오천축국전〉도 포함되어 있다.

막고굴을 관리하고 연구하는 둔황연구원은 관람객들의 출입으로 진행되는 훼손을 막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고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장경동'을 제작하기로 결정, 지난 15일에 결과물을 공개했다. 연구원 측은 "700여 개가 넘는 동굴들 중 장경동이 막고굴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기에 장경동을 가장 먼저 가상현실로 제작했다"고 제작 취지를 밝혔다.

3D게임 제작으로 유명한 텐센트가 제작한 이 디지털 장경동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제작됐다. 디지털 트윈은 단순하게 가상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실제 사물과 환경, 상황을 그대로 복제하여 가상현실로 옮기는 것으로 실제 장경동과 1:1로 대응하게 된다.

둔황연구원은 디지털 장경동을 제작하면서 해외로 유출됐거나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장경동의 문헌도 동굴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재현하면서 명실상부한 장경동을 만들어 냈다. 가장 먼저 디지털로 만들어진 문헌은 현재 둔황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귀의군아부주파력(歸義軍衙府酒破歷)〉으로 당나라 때의 공문서다.

또한 둔황연구원과 텐센트는 막고굴의 디지털 장경동의 공식 캐릭터 '가요(伽瑤)'도 함께 공개했다. 막고굴 벽화 가운데 등장하는 가릉빈가를 모티브로 한 가요는 디지털 장경동을 방문한 관람객들을 안내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둔황벽화에 묘사된 춤을 보여주는 등의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만들어졌다.

연구원과 텐센트 측은 장경동을 시작으로 남은 막고굴들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가상현실로 옮길 계획이다. 또 이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문화재의 디지털화 분야의 인재 육성도 전개한다.

부탄 불교계, 비구니계 부활…왕실 적극 지원

6월 21일, 144명 비구니 탄생
티베트 불교 불평등 해소 기대


제 켄포를 전계대화상으로 비구니 수계산림이 부탄에서 열렸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티베트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부탄에서 144명의 비구니 스님이 탄생했다. 6월 25일, 해외 불교 전문 매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과 여러 해외매체들은 부탄을 비롯해 인도와 영국에서 온 다국적 사미니 스님들이 구족계를 완전히 갖춘 비구니로 탄생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수계를 통해 단절됐던 티베트 불교계의 비구니계맥이 부활했다.

지난 6월 21일, 부탄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제 켄포가 주석하는 승원인 슝 다창 사원은 공식 SNS를 통해 비구니 수계산림에 대해 발표했다. 슝 다창 측은 "부탄 수도인 파로 교외의 람탕카 사원에서 수계산림이 열렸으며, 전계대화상으로 부탄불교 최고지도자인 제 켄포인 툴쿠 직메 최다 스님이 직접 구족계를 수계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계산림을 통해 구족계를 온전히 지닌 144명의 비구니가 배출됐다. 이들 대부분은 부탄 출신이나 일부는 인도에서 참가했으며 오직 구족계를 받기 위해 영국에서 참여한 사미니 스님도 있었다.

이번 수계산림은 부탄 왕실의 지원하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 부탄 국왕의 어머니인 체링양된 대비가 2009년 설립한 '부탄 비구니재단'을 통한 여성 출가자들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 등의 결과물이다. 이번 수계를 받은 스님들은 비구스님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통해 아사리나 승원장과 같은 법계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

티베트 불교권의 경우 역사적으로 비구니계가 전해진 정황은 있으나 단절됐다. 현대에 티베트 불교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여성출가자들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교계 안팎에서 지적되면서 비구니 계맥의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티베트 불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 카르마파, 걜왕 둑파 린포체 등 여러 종단의 지도자들의 지지 하에 계맥의 복원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된 한 스님은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말이 나오질 않는다.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다"며 감동을 표현했다. 또 다른 스님은 "수계 전에는 성불을 위해 내생에 비구로 태어나길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의 몸으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단 확신을 가진다"고 당당한 포부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페인, '제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 연다

10월 19일~23일, 바르셀로나
어린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도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 홍보 이미지.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해 10월 제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FCBC) 개막이 예정되어 화제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6월 27일 스페인 카탈루냐 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제 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 개막 소식을 전했다.

불교 영화제는 카탈루냐와 발레아레스 제도 내 30여 개의 불교 단체로 이루어진 카탈루냐불교단체조직(CCEB) 주관이며 국제불교영화제(IBFF)의 제작사 불교영화재단(BBF)과의 협력 및 달마가이아재단(DGF)의 지원을 받는다.

2022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베르디 영화관에서 열릴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에서는 불교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상영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교육, 사회, 양성평등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세션에는 영화감독들의 온라인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 토론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CCEB의 공동 설립자이자 부회장인 몬테 카스텔라 올리브는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는 격년 개최를 목표로 출범했다"면서 "불자나 불교를 위해 만든 행사가 아닌 영화처럼 우리 시대에 맞는 매력적인 매체를 통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불교적인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영화제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고, 가치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탄소발자국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종이 사용량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한 재활용 가능한 재료만을 사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녀평등과 여성의 참여를 존중하는 기준에 따라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의 불교 영화 선정 기준은 전달이 쉬운 이야기로 구성되어야 하며, 영화의 중심에 불교적인 요소와 등장인물 또는 사건이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계의 핵심 창작자(감독 또는 각본가) 또는 불교계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

스페인의 불교 매체 '에스파뇰'의 편집자 다니엘 밀레는 "영화는 설법 못지않게 심오하지만 불교의 기초 교리를 재미있는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객에게 불교를 전할 수 있는 완벽한 매체"라고 평론했다.

제1회 카탈루냐 불교 영화제에서는 불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베르디 영화관 내 다양한 장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명상 세션과 워크숍, 영화 포럼, 콘퍼런스, 토크 및 야외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 승려 체포

평화 시위 중 21명 체포 논란 일어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 정부" 개탄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동참한 스님을 포함한 21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가톨릭 아시아 뉴스 연합'은 6월 21일 스리랑카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에 동참한 스님을 포함한 21명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각계 종교 지도자와 수천 명의 스리랑카 주립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라자팍사 대통령의 73번째 생일인 6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서 경제위기 대처 실패 및 국가 부도 선언을 이유로 대통령과 총리 퇴진을 촉구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한 스님 등 21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시위대가 재정부의 출입문을 봉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의 협의회 참여를 방해했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다. 체포된 시위대는 법정에서 각각 50만 루피(한화 약 800만 원)의 보증 보석을 받고 풀려났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을 지지하는 인권운동가 아밀라 지완타 신부는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평화 시위를 막지 말라. 오늘은 스리랑카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소통이 불가한 지도자가 탄생한 가장 비참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모든 스리랑카 국민은 집 밖으로 나와 부패한 지도자를 쫓기 위해 시위를 벌여야한다"며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 시위대는 "현 정권에서 적절한 국제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IMF 대표단의 도착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자팍사 대통령 퇴진 운동은 지난 4월 9일 수도 콜롬보에서 시작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스리랑카는 외국 채권자들에게 빚진 500억 달러(한화 약 65조 원) 이상의 채무 재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법무장관, 전 총리, 전 재무장관, 전 중앙은행 총재, 전 재무장관, 현 총리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기본권 청원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